

상하수도 전시회 11월8일 개막



예상되고 있다. <고우리 기자>

수처리막 생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 상하수도전시회(WATER & SEWERAGE EXHIBITION 2010)가 개최된다.

국내 최초로 멤브레인(Membrane) 특별전시관이 운영되며 정수 처리분야, 해수 담수화분야, 하수처리 및 물 재이용분야 등 국내 수처리 분야의 막 분리기술 산업을 총망라한 기술세미나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내외 멤브레인 시장의 현황과 비전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특히, <Membrane 특별기획전>과 <막 분리 기술세미나>는 최근 고부가가치 및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멤브레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유망 물산업 분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

<화학저널 2010/10/28>